

## 외국어로서의 영작문에 있어서 모문화의 간섭

최 용 재

(동국대학교)

**Choe, Yong-jae. (1997). Mother culture interference on EFL writing.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3, 1~12.**

Errors in EFL writing are very often attributable to learner's inadequate understanding of the target culture. Most of these errors are very hard to identify because they are grammatically correct notwithstanding the meaning. EFL learners almost habitually equate the meaning and usage of a linguistic item when it is present both in the native and the target languages. However, seemingly identical items in both languages sometimes prove themselves to be distinct from each other because of cultural differences. Some expressions in the native language are neither socially acceptable nor meaningful in the target language. Out of sheer ignorance, moreover, one puts a target item in the way he may use it in his native language. For instance, the primary feature of the term "friend" in Korean is [+same age group]. So, a Korean young man is not supposed to call his teacher a friend. This paper aims to clarify patterns of college level writing errors caused by interference of mother culture.

### 1. 서 론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대조분석에 입각한 가설의 효용을 학자들과 교사들이 인정하지 않게 된지가 벌써 오래이다. 그렇게 된 중요한 이유는 대조분석에 의한 예측이 실제와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더욱이 외국어 학습자가 범하는 오류 가운데 대부분이 언어의 발달단계에서 생기는 오류이거나 목표언어

의 혼란에 의한 오류라는 주장(Dulay and Burt, 1972, 1974a, 1974b)이 그런 현상을 더욱 부추기게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대조분석에 의한 연구의 결과는 외국어 학습자의 오류를 사전에 예측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의 설명에 유용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는 주장(Catford, 1968 ; Lee, 1971 ; Wardhaugh, 1970)이 설득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외국어 학습상의 오류 가운데 절대다수가 모국어나 모문화로부터의 간섭에 의한 것으로 결론 지을 수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이 논의하고자 하는 바는 모국어와 모문화의 전이에 의한 오류이다.

학습상의 전이는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는 바, 누구나 다 아는 바와 같이 학습상의 전이는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보통이다. 이로운 전이 즉 긍정적 전이(positive transfer)는 facilitation이라 부르고, 해로운 전이 즉 부정적 전이(negative transfer)는 interference라고 부른다. 우리가 문제로 삼을 것은 당연히 전이로 말미암아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부정적 전이 즉 interference(간섭)이다. 이는 이미 배운 내용이 새로 배우는 내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미 배운 모국어의 요소가 새로 배우는 외국어의 요소를 대체하는 경향을 보이는 때서 발생하는 오류이다. 특히 표출과정에서 새로 배운 외국어의 요소가 불확실하거나 미비할 때, 확실하거나 완성된 모국어의 요소를 냉큼 사용하는 것이 어찌면 당연하다고 하겠다(참고 George, 1972 : 8-14). 그러나 모국어의 요소가 외국어의 구사에 크게 간섭을 하게 되면, 외국어의 학습에 큰 지장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종래에는 외국어 학습 자체를 망치게 된다.

사실 모국어의 간섭은 그 심도와 범위가 너무나 깊고 넓기 때문에 대조분석의 범위를 쉽게 가늠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최용재, 1984, 1987). 특히 문화 요소의 간섭을 고려에 넣지 않을 수가 없는데(최용재, 1990), Lado(1957 : 2)의 고전적 이론은 문화의 형태와 의미 그리고 분포를 고루 다루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주장은 대조의 심도와 범위를 단적으로 지적해낸 것으로, 이런 정도라면 아무리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도 완벽한 대조를 완성할 수가 없을 것 같다. 따라서 학습자들의 영작문을 읽어보면, 문법적으로 볼 때 전혀 하자가 없는 문장이 실제로는 옳지 못한 경우가 흔하다. 이 논문에서 내보이려고 하는 바도 바로 그런 부류의 오류이다. 간섭에 의한 오류는 모국어의 표현을 영어로 직역하여 놓음으로서 발생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오류의 상당 부분이 문화간의 차이로 말미암은 것들이어서 문법이나 어휘의 선정만을 놓고 논의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겠다.

## II. 오류의 수집과 유형별 분류

이 논문에서 예로 채택한 오류들은 모두 1997년 봄 학기에 개설된 동국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학년 과정의 “고급영작문” 수업에서 모아진 것들이다. 이 과목은 선택에 의하여 수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구성은 다양한 전공자로 이루어졌고 그들의 영어실력은 동급생들에 비하여서는 비교적 우수한 편이었다. 매주 한 문단을 자유작문으로 집에서 써오도록 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영작문에서는 영한사전은 물론이고 한영사전과 영영사전을 다 참고한 흔적이 보였다. 특히 어휘가 부족하면 한영사전에 크게 의존하는 듯 하지만, 사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거나 사전 자체의 오류를 그대로 수용한 듯한 느낌도 있었다. 문법의 경우에는 중급수준이나 고급수준의 것들은 주의를 잘 한 탓인지 틀리지 않았으나, 수의 일치(concord)와 같은 아주 초보적 문법사항에서 너무 쉽다고 주의를 하지 않은 탓인지 오히려 오류가 반복되어 나타났다. 한편 이 논문에서 드는 모든 예는 조금만 주의를 하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므로, 그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겠다.

한 학기 동안 이사를 줍듯이 모아온 오류들을 어떤 기준을 세워서 분류하는 일은 상당히 버거운 일이다. 가장 큰 이유는 하나의 오류가 발생하는 원인이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화에 크게 관련이 없는 오류는 한데 모아서 일상적 오류로 분류하고, 나머지 오류를 문화와 연관하여 설명하려고 한다. 그러나 아무리 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대개가 한국어의 표현을 영어로 직역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오류들이다. 그러면 이런 직역이 흔한 이유를 천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대부분이 한국어의 표현이 영어에도 통용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물론 이들 오류의 예는 영어를 학습하는 동안에 이미 배운 규칙을 한국어의 의미를 영어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잘못 사용한 것들이 있는가 하면, 한국어의 표현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영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도 있다. 통틀어 볼 때, 한국적 발상이 영어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인식하는데서 생기는 오류가 전부라고 할 수 있다.

## III. 일상적 오류

학습자의 오류에서 가장 일상적인 것들은 어휘의 선택이 잘못되었거나 문법규칙이 잘못 적용된 경우에 발생하는 것들이다. 우리가 신문을 보고 흔히 “한보

(뇌물)사건"이라고 하는데, 학습자들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건"을 한영사전에서 찾아보고 "accident"를 알아내어 Hanbo *accident*라고 한다. 물론 이는 "seandal"이라고 해야 할 것이며 적어도 "incident"라는 정도의 표현을 해야 할 것이다. 이와 비슷한 것으로 "삼위일체의 하느님"을 "Trinity's God"으로 직역하고 있다.

(1) I believe in *Trinity's God*.

그러나 문장 안에서 이런 경향을 더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2)와 같다.

(2) Cars made our life *convenient*.

(2)에서는 "자동차가 우리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들었다"는 일상적이고 비논리적인 표현을 그대로 직역하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는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될 뿐, 우리의 생활 그 자체를 편리하게 만들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편리하다"는 말은 "convenient"가 아닌 "comfortable"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영어에서 진행형으로 써서는 아니 될 동사를 한국어로는 그렇게 표현하는 수도 있다는 점을 의식해서인지 오류를 범하고 있는 바, 이는 한국어를 영어로 직역했다는 느낌을 준다.

(3) I *was missing* you during winter vacation.

(4) I *am feeling* that the period is very short.

(3)에서는 "그리워하고 있었다"를, (4)에서는 "느끼고 있었다"를, 영어로 표현한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시 말하자면, 한국어의 "-고 있다"라는 어미가 현재진행형을 나타내므로, 이를 영어로 표현하자면 당연히 영어의 현재진행형을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영어에서는 정의적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의 진행형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제약을 알지 못한데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어순을 위반하거나 비교의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오류들이 있다.

(5) Our country has *distinct four seasons*.

(6) Europe's summer is less hot than I *expected*.

(5)는 four distinct seasons를 유행가의 가사처럼 "뚜렷한 사계절"로 하여 "뚜렷한"과 "사계절"이 각각 한 단위를 이루어, 영어에서도 "distinct"와 "four seasons"를 각각 한 단위로 인식한 결과로 위의 두 단위를 한국어에서 배열되는 순서대로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6)은 표현하는 과정에서 우리말의 "것" 즉 영어의 "what"을 빠뜨리고 그저 "I expected"가 되어 "Europe's summer"와 "I expected"가 비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논리가 어쩐지 이상한 것들을 들어보자

(7) I *want to buy* a car, but I *have decided to postpone* it.

(8) If you *plan to buy* a car, I strongly urge you to consider the reasons why you need a car before you *decide to buy* a car.

(7)의 종속절에서 “나”는 차를 사려고 하는데, 주절에서는 차를 사는 일을 뒤로 미루기로 이미 결정했다. 지금 차를 사려고 하는데 이미 사지 않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니 논리의 모순이 생긴다. 만일 여기서 종속절이 “I wanted to buy a car”였다면, 전후의 논리가 성립될 것이다. 물론 우리의 정서로는 차를 사는 일을 연기했다고 하더라도 지금도 차를 사고 싶은 것은 사실이다. 이런 정서가 그대로 표출되어 오류를 유발했다고 생각된다. (8)의 경우에도 차를 사려고 한다는 말은 이미 결정했다는 말일 수도 있는데 결정을 새삼스럽게 해야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논리가 성립되려면, 차라리 “before you actually buy the car” 정도의 표현이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 IV. 직역에 의한 오류

한국어를 영어를 직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의 특징은 얼른 보아서는 영어문장이 흠잡을 데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before some days”는 “몇 일전”을 직역한 것으로 “some days ago”를 뜻하는 것이다. 다음을 보면

(9) *In these days*, an effort has been made to protect wildlifes.

“In these days”에는 “요즈음에”의 “-에”를 표현하려는 노력으로 “in”이 굳이 첨가되어 있다. “these days” 자체가 부사임을 잊기 쉬운데 “in”을 첨가한 이유는 한국어에서 부사적 표현이 어미의 첨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례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논리가 영어의 전치사를 한국어의 어미정도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지만 않은지 의심스럽다. 그러기에 다음의 예들에서는 부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10) I have two reasons why I recommend *there*.

(11) You love *there*.

“there”가 한국어로는 “그 곳”일 터이니 명사로 쓰이는 것이 당연하다.(이를 부사로 쓰려면 “에”를 더하여 “그 곳에”로 만들어야 비로소 부사가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어의 부사구를 영어로 직역하여 오류가 발생한 예는 아주 많다. 특히 우리의 습관대로 잉여정보까지를 모두 영어로 표현함으로써 생기는 오류가 많다.

(12) *Frankly speaking*, I didn't like her.

(13) ……while they played together *as other days*.

(12)는 어느모로 보거나 틀린 구석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speaking”은 의미상으로 볼 때, 이 부사구에서 잉여정보이므로 굳이 덧붙일 필요가 없는 말이다. 그냥 “Frankly, I didn't like her.”라고 말하면 그만일 것이다. (13)에서도 “as other days”를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정도의 의미로 보아, “as they always did”나 “as always”로 표현하면 충분할 것이다. 말하자면, 군더더기를 없앤 표현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한편 한영직역에서 발견되는 오류 가운데는 일상회화에서 사무적이거나 특수한 형태의 언어사용을 시도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주는 경우가 있다.

(14) What is *your age*?

(15) *His age* is twenty-one.

(14)는 무슨 심문을 받는 투의 “나이는?(Your age?)”이라는 질문과 다를 바가 없다. (15)는 “그 사람 몇 살이지?”에 대한 답으로 “그 사람의 나이는 스물 둘이예요”라고 답하는 식이다. 그러나 일상적으로 말할 때는,

(14') How old are you?

(15') He is twenty-one years old.

라고 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같은 모양으로, “어떤”이나 “무언가”의 뜻을 “any”로 표현하는 예가 있다. 이 경우에 의문문에서는 any를 쓴다는 영문법의 지식에 합당하게 any를 쓰기도 하지만, 의미에 따라서는 any를 평서문의 어두에 쓰기도 한다.

(16) Is *anything special* with you?

(17) *Any country* cannot live alone.

(16)의 “anything special”은 “무슨/어떤 특별한 일이라도 있습니까?”의 “무슨/어떤 특별한 일”을 직역한 것이다. 또한 (17)의 “any country”는 “어떤 나라”의 직역이다. 두 문장이 다 구문 상으로 옳지 않지만, 여기에서는 any에 관련하여서만 생각해 보자. (16)의 “any”는 “당신에게만 특별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뜻하여, 오히려 “what”의 의미로 쓰이고 있다고 하겠다. (17)의 “any country”는 “어느 나라를 들어보아도 그 한 나라”를 뜻하고 있어서, 단순히 “a country”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이다.

끝으로 한국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로 이를 영어로 직역을 해놓은 결과 오류가 발생한 예를 보자.

(18) Sokkuram grotto was built *on top of* Toham Mountain.

(19) The palace was built *below* Inwang Mount about six hundred years ago.

(18)의 석굴암은 당연히 토함산 "위에" 지어졌고, (19)의 궁궐 또한 당연히 인왕산 "아래" 세워졌다. 그러나 사실은 석굴암은 토함산의 중턱쯤에 있고, 궁궐은 인왕산의 산자락이나 발치에 있다. 영어의 "on top of"라면 "산마루에"라고 말할 것이고, "below"라면 "below the surface"처럼 "수직으로 아래"인 위치를 나타낸다. 따라서 (18)과 (19)는 정확성이 어느 정도 결여되어 있는 우리말의 표현을 그대로 영어로 옮겨 놓은 것인데, 이를 영어로 읽을 때는 정확하게 인식하므로 말미암은 오류임을 알 수 있다.

## V. 다양한 표현들

### 1. mind와 head

우리 식의 표현에서는 mind(마음)와 head(머리)가 때때로 혼용되는 경우가 있다. "머리가 혼란스럽다"는 말은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지 물질적인 "머리"가 혼란스러울 수는 없는 일이다. 물론 "head"가 물리적 "머리"를 의미하는 경우를 상징할 수는 있다.

(20) I feel *the empty of my head*.

(20') I feel my head empty.

(20)은 "머리가 텅 비어 있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이 문장이 이상한 이유는 "머리"에 빈 공간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만일 "머리"가 "마음"을 뜻하지 않는다면, 다음의 예는 이상하기만 하다.

(21) *In my head*, there is no room for the poachers in Africa.

(21)의 계략적 의미는 "아프리카의 밀렵꾼을 생각할 만큼의 마음의 여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mind"가 항상 올바르게 쓰이는 것은 아니다.

(22) I am concerned/worried.

정도의 뜻으로 정작 "마음"을 직접 언급할 필요가 없다. 또 하나의 예는 "마음"이 직접 언급될 필요가 없는 예는 이미 (12)에서 든 바와 같이 "frankly speaking"처럼 지나친 잉여정보가 도리어 오류를 발생케 한 것이다.

(23) Finally, I *decided my mind* to study chemistry.

"내 마음을 결정하다"는 영어로 "to make up my mind"이다. 그러나 영어의

이 낱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decide"이다. "decide"에 "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 문장에서 "my mind"는 잉여정보를 표현할 필요가 없다.

## 2. 의미의 괴리

결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 같은 문장도 사실은 의미가 올바르게 표현된 것이 아님이 밝혀지는 경우가 많다. 다음 두 예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24) My parents frequently *pointed out* the importance of self-discipline.

(25) Without his stern scolding, I might have *chosen* the skill as my job.

(24)에서 "point out"은 대개 지적사항에 쓰이는 말이어서, 이 문장의 내용과 전후 사정을 볼 때 전혀 적합하지 않다. 사실은 "부모"가 하려고 한 일은 "자제"라는 덕목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emphasize"임에 틀림이 없다. (25)에서도 여러 기능 가운데 어떤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쓰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chosen" 대신에 "taken"이 정상적인 의미이다.

다른 예를 보자.

(26) EBS TV *shows a good sample*.

(27) If someone realizes the happiness of man cannot exist in this foolishness, he can be *the owner* of TV, not the slave.

(26)은 EBS가 "a good sample of example"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이해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장을 쓴 학습자의 의도는 EBS 자체가 "좋은 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EBS sets a good example."에 가까운 의미이거나, 오히려 "EBS serves as a good example."을 의미하고 있다. (27)의 전체 내용은 TV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이라는 것이다. 대개 "이 물건의 주인이 누구냐?"에서는 "주인"은 분명히 "owner"이다. 그러나 영어로는 "the owner"와 "slave"의 대비에서 보듯이 이 문장에서의 "주인"은 "owner"가 아닌 "master"이다.

우리말에서는 "할 수 있다"는 말이 많이 쓰이는 경향인데, 이는 가능성이나 능력을 나타내는 말이다. 그러므로 같은 내용을 영어로 표현할 때는 "can"이나 "to be able to"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데도, 이를 굳이 쓰는 버릇들이 있다.

(28) Insa-dong is one of the best places *to be able to see* Korea's traditional culture.

(29) When you arrive, first you'll be surprised at the countless seagulls you *can never imagine to see*.



(28)에서 "to be able to see"는 "볼 수 있는"의 뜻이지만, 영어로는 단순히 "to see"라고만 표현하면 그만일 것이다. (29)에서도 "can never imagine"은 "상상도 할 수 없는"이란 뜻으로 우리말에서는 다분히 앞으로 그런 장면을 다시 보리라 하고 상상도 못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영어로 생각해 보면, 그 장면을 보기까지는 상상도 못했던 장면이란 뜻이 되어야 올바른 표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영어로는 "you have never imagined"가 옳을 것이다.

문화간에 있을 수 있는 표현의 차이가 의미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일에 실패하게 한다.

(30) Unfortunately the price is not so cheap.

(31) Many women have difficulties between job and home.

(30)에서 우리말로는 가격이 싸고 비쌀 수 있으나, 영어로는 "가격은 높고 낮거나 정확한 액수가 있으며, 물건이 싸고 비쌀 수" 있다. 즉 "Prices have gone up."이나 "The price is \$25.00." 등이 옳고, "Jeans are so cheap." 등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31)은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어려움이 많다"는 말인데, 사실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일들을 "조화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든가 "두 곳의 일을 하느라 힘이 많이 든다"는 의미일 것이다. 먼저 집과 직장을 대비하려면, "between home and work"가 될 것이다. 또한 두 곳 사이의 조화를 이루려고 하면 "have difficulty in striking a balance between home and work"로, 그리고 힘이 든다면 "suffer from overwork both at home and work" 정도가 일 것이다.

### 3. 잡다한 표현들

딱히 어떤 범주에 속한다고 분류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한 예들 가운데 특이한 것들을 모아 보았다. 대개 직역에 의한 오류이지만, 주어진 의미에 대하여 다른 대안이 없음을 확신한 것 같은 쓰임새가 특징이다.

(32) I'd had a dozen of jobs within two years before I went to army.

(33) First of all, how are you going?

(32)에서는 "군대에 간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영어로는 "joined the army"라고 하여 "군에 합류한다"는 말을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심지어 우리는 "군대에 갔다"라는 말로 "군 의무를 필하였다"는 뜻하기도 한다. 영어로는 아마 "did the national service"가 될 것이다. 그러나 같은 "go"도 (33)에서는 "지낸다"는 의미를 나타내려는 것이다. 어찌면 "How are you doing?"이라는 표현이 낯설는지 모른다.

표현의 다양성을 단순화한 예를 들어보자.

(34) In Europe many countries live together.

이 문장을 우리말로 번역해 보면, “유럽에서는 많은 나라들이 모두 함께 산다”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장의 참뜻은 “많은 나라들이 평화롭게 공존한다”라는 뜻이 아니면, “많은 나라 사람들이 잘 어울려 산다”라는 뜻일 것이다. 따라서 “In Europe many countries coexist together.”이거나, “사람”이 더해져서 “In Europe people of many countries live in harmony.”일 터이다. 이는 이미 앞에서 든 예인.

(17) Any country cannot live alone.

에서처럼 같은 “live”이지만 의미는 다르다. (17)의 경우는 “A country cannot survive(or stand) alone.”이어서, “존재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

## VI. 결 론

비교적 짧은 이 논문에서 발견한 것은 한국인 영어학습자의 작문에서 한국문화의 간섭이 일단 옳은 것 같으면서도 정작 매끄럽지 못한 문장을 쓰게하여 오류를 발생케 한다는 사실이다. 발생한 오류의 유형을 보면, (1) 어휘나 구문에서 발생하는 일상적 오류, (2) 한국어의 표현을 영어로 직역하여 발생하는 오류, (3) 어휘의 혼동에서 발생하는 오류, (4) 문화에 의한 의미의 괴리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5) 기타 원인이 애매한 오류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가운데 일상적인 오류와 애매한 오류를 제외하고 보면, 나머지 세 가지 오류의 유형은 모국어 및 모문화의 간섭에 의한 오류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다. 다시 말하면, 넓은 의미에서 문화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오류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이 논문에서 수집한 오류의 대상이 고급수준의 학습자들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영어 학습자의 영어능력이 신장함에 따라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오류의 유형이 문화의 차이로 말미암은 것들이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문화의 차이가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이라면, 이는 모문화의 간섭에 의하여 오류가 발생한다는 말이다. 이 논문에서 든 오류들은 대부분이 (1) 문화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관련된 두 문화를 동일시하여 발생한 오류들인가 하면, (2) 목표문화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우리 문화를 대체함으로써 발생한 오류들이다. 두 문화를 동일시한다는 증거로는 우리말의 문장을 영어로 직역을 한다는 데서 발견할 수 있다. 목표문화에 대한 무지는 우리말의 낱말과 영어의 어휘를

혼동한다던가 영어의 표현상 의미의 괴리에서 그 증거를 발견할 수가 있다. 이런 현상을 한 마디로 말하면, 목표문화를 전혀 모르거나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오류가 발생한다. 이 논문에서는 문화간에 발생하는 오류를 좀더 심도있게 서술하지는 못했으나, 영어 학습자의 영작문에서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원인으로 모문화의 간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과 특히 고급수준에서 이런 현상이 더욱 심각함을 지적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 발견한 내용에 비추어 우리의 영작문 나아가서는 영어교육 전반을 생각해 보면, 목표문화에 체계적으로 접근하여 학습자들에게 문화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워 줄 필요가 있다. 그 사이 목표문화의 교육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친구"가 영어의 "friend"와 꼭 일치하지 않음을 가르친 예는 극히 드물다. 우리말에서 "친구"가 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same age group]인데, 영어에서는 반드시 그렇지는 않는데 교습의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문화의 이해나 교육은 최소한 Lado의 권고대로 "형태, 의미, 분포"를 올바르게 파악하여 실시해야 할 것이다. 올바른 문화의 이해는 곧바로 영어능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 최용재.(1984). 대조분석의 범위. *영어교육*, 28, 55-71.
- 최용재.(1987). 대조분석의 재평가. *영어교육*, 34, 23-40.
- 최용재.(1990). 외국어 교습과 문화. *언어논총* 8(계명대학교), 61-79.
- Catford, J. C.(1968). Contrastive analysis and language teaching. In James E. Alatis(Ed.), *Monograph Series on Language and Linguistics*, 21(pp. 159-173). Washington, DC : Georgetown University Press.
- Dulay, Heidi C. & Burt, Marina K.(1972). Goofing : An indicator of children's second language learning strategies. *Language Learning*, 22:2, 235-252.
- Dulay, Heidi C. & Burt, Marina K.(1974a). Errors and strategies in chil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TESOL Quarterly*, 8:2, 129-136
- Dulay, Heidi C. & Burt, Marina K.(1974b). A new perspective on the creative process in child second language acquisition.

- Language Learning*, 24:2, 253-278.
- George, H. V.(1972). *Common Errors in Language Learning*. Rowley, Miss. : Newbury House.
- Lado, Robert.(1957).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nn Arbor :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Lee, W. R.(1971). Types of interference and contrasting..... the kinds of research needed. In Gerhard Nickel(Ed.), *Papers from the International Symposium on Applied Contrastive Linguistics, Stuttgart, October 11-13, 1971*(pp. 13-26). Bielefeld : Cornelse-Velhagen.
- Wardhaugh, Ronald.(1970). The contrastive analysis hypothesis. *TESOL Quartely*, 4:2, 123-130.